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8>]한국 대표하는 '우리나무'...서구열강 독식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3.10. 16:03:25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백년



7. 구상나무-세계를 석권하다(상)

삭막한 겨울에도 싱그러운 생명력을 잃지 않는 수많은 상록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나무. 그러나 그 나무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나무가 있다. 구상나무.



산림청 국립 광릉수목원 이유미 박사는 몇 해전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작 우리가 구상나무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구상나무 등 일부만이 세계의 나무들 속에서 뿔뿔이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나무’에 올라 있습니다.”

이 박사의 말처럼 나무의 이름표에 ‘코리아나(koreana)’를 달고 있는 몇 안되는 나무 중의 하나가 구상나무다. 이 나무의 학명이 바로 아비에스 코리아나(*Abies koreana*)다. ‘한국의 전나무종류’라는 뜻이다. 지구상에서는 오직 우리나라에만 자생해 한국특산이라는 의미가 이 학명속에 녹아있다.

제주인들은 이 나무를 구상낭이라고 불렀다. 솔방울이란 뜻의 ‘구상’과 나무의 제주어는 ‘낭’이니 구상낭은 솔방울나무이다. 열매의 색깔에 따라 ‘푸른구상’ ‘붉은구상’ ‘검은구상’ 등 종류도 다양하다.

구상나무는 소나무과(科) 전나무속(屬)에 속하는 식물. 전나무속에는 전세계적으로 모두 45종의 식물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전나무와 분비나무, 구상나무 등 3종이 있다.

한라산 구상나무림은 세계에서 유일한 순군락이다. 이 곳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덕유산, 지리산, 무등산의 해발 5백m 이상 고산지대에 자라기도 하지만 그 규모가 한라산에 비할 바가 못된다. 한라산에는 정상을 중심으로 해발 약 1천m 이상 지역에 집중적으로 자라는데 그 면적이 무려 8백40여만평에 이른다.

선녀와 나뭇꾼이야기가 만들어졌던 먼 옛날 선녀들이 한라산에 내려와 목욕을 즐기고 있을 때 푸르고 울창한 구상나무들이 그들을 가려주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라산 구상나무는 대표적인 자원식물이지만 제주인들에게는 뼈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나무다. 이미 백년전 이 땅에서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로 빠져나가 서구열강의 외화별이가 되고 있음에도 '소유권'조차 주장할 수 없게 돼버렸기 때문이다. 서구열강에 의해 반출돼 자원화에 성공한 대표적 자원식물이 구상나무인 것이다.

한국특산 구상나무는 서구로 실려나간 후 미국은 물론 유럽에도 널리 알려져 수많은 정원수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개량돼 1세기 가깝게 세계조경시장을 풍미해오고 있다. 제주의 식물은 이렇게 1백년전부터 세계가 주목하는 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내 자원식물의 해외반출은 20세기 초에 집중됐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자생식물이 표적이 됐다. 세계적으로 제주가 특산인 왕벚나무도 대표적인 사례.

한라산 구상나무가 이처럼 선진 외국인들의 눈을 잃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상나무의 모양이 곧고 아름다울뿐만 아니라 잎이 부드러우며 색깔이 은은하고 독특한 향기까지 발산해 정원수, 공원수는 물론 실내 화분용으로도 제격이기 때문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로 안성맞춤이어서 이같은 정서에 맞는 서구인들의 구미를 더욱 당긴 것이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서구인들에 의한 구상나무의 재생산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한라산에서 확보한 구상나무를 재료로 다양한 품종들을 확대 재생산해냈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구상나무의 재배품종만 보더라도 'Blauer Pfiff' 'Glauca' 'Blue Standard' 'Brevifolia' 'Compact Dwarf' 'Flava' 'Horstmanns Silberlocke' 'Piccolo' 'Silver Show' 등 수없이 많다. 개량된 품종은 대부분 유럽에서 집중적으로 개발됐다.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품종이 개발되고 나무시장을 풍미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제주의 자원식물이 서구인들에게 막대한 외화별이로서 자원화되고 있는 사실을 구상나무는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진설명]한라산 대표적 특산 수종인 구상나무가 서구 열강에 의해 해외로 반출될 당시 장면. 1917년 윌슨이 한라산에서 구상나무와 동반자를 배경으로 직접 찍은 사진으로 하버드대학 표본관에 소장되어 있다. 사진은 나무의 키와 안내자의 키를 비교하는 장면으로, 한라산 북서 사면에서 촬영했다는 기록이 붙어 있다(사진 위). 또 한 장의 사진은 종자에서 번식시킨 제주산 구상나무 1그루가 현재 하버드대학교 부설 아놀드식물원에 식재돼 전시되고 있는 장면으로 1987년에 촬영된 것이다./사진=아놀드식물원·국립산림과학원 김찬수박사 제공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